

종단 ‘세종시 포교거점’ 확보

전법도량 부지매입…신도시 포교 초석 다져
 세계적 ‘명품사찰’ 건립 위해 종도의견 수렴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될 조계종 전법도량에 대한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등 제34대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도시 포교’의 첫 발을 내딛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충재 세종시 건설청장의 예방을 받고 사찰 부지 매입 체결을 최종 확정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에 건립되는 사찰은 대표적인 전통사찰로 건립할 것이며, 세종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사찰로서 세종시민과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 등에게 한국사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이자 복지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충재 건설청장은 “불자뿐만 아니라

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가운데 세계 도시에 걸맞는 종교시설이 건립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종단이 건립할 사찰의 부지는 세종시 세종리 7153-1번지(구 양화리) 일대 1만 여㎡(3000여 평) 규모로 전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종단은 부지 확보를 시작으로 불사추진위원회 구성 등 도량 건립을 위한 세부적인 불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는 제34대 집행부의 핵심 정책사업 가운데 하나인 ‘신도시 사찰건립 지원과 수도권 및 신도시 포교거점 확보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됐다. 총무원 재무부장 보경스님은 “종단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사찰 토지를 매입해 포교와 불교 전통문화화를 활성화하는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시와 LH공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충재 세종시 건설청장의 예방을 받고 세종시 전법도량 부지 매입체결을 최종 확정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사 등과 협의해 종단의 위상을 드높이는 명품 사찰을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2005년 5월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이에 따라 2012년 6월 기존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공주시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원이

합쳐져 출범했다. 현재 이곳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36개 부처가 입주해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을 필두로 각종 정부 부설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하고 있다.

 신도시포교총책 특별보좌관 허운스님은 “불교용지 특성에 적합하고

정부세종청사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해 토지를 선정하게 됐다”면서 “현재 세종시에서 토지구획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에 맞춰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량을 건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남북교류, 민족공동 이익 관점에서”

김이경 전 사무총장, 민주본 월례강좌서 강조

“북은 각계각층의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류사업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에 나서는 경향이 강하다.”

김이경 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사진)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흥스님)가 지난 9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남북민간교류, A부터 Z까지’를 주제로 개최한 월례강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이경 전 사무총장은 대북사업 전문 컨설턴트로 지난 2004년 창립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최근까지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날 김이경 전 사무총장은 다양한 방북현장 경험과 교류사업을 실시했던 경험을 토대로 대북사업을 준비하거나 남북교류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이경 전 사무총장은 “교류협



력에서 남측이 종교교류나 경제협력, 인도지원 등 물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반면 북측은 이념적,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며 “또 북측 주민들에게 남측이 통일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자립적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를 고려한다”고 강조하며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이 교류협력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이경 전 사무총장은 “북측에 교류협력을 제안할 때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명분은 거의 통하지 않으며 민족공동 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과 북의 입장이 서로 소통하고 합의돼야 협력사업이 성사되는 만큼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국제선센터, 군·수용자 포교 나서

1공수여단 일취사 방문
 ‘1사찰 1군법당 자매결연’

한국불교 세계화와 서울 서남권 포교 거점도량인 서울 국제선센터가 군포교와 수용자 교정교화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며 불법홍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스님)는 지난 6일 제1공수특전여단 일취사를 방문해 ‘1사찰 1군법당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첫 번째 법회를 지원했다.

 국제선센터와 일취사 신도회는 자매결연을 통해 △장병 사고예방을 위한 명상·상담·치유프로그램 연계 진행 △장병 병영생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진행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장병 위문 및 법회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1월부터 1공수여단 일취사에 군법사가 파견되지 않아 법회활동이 위축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국제선센터는 부대 불자 간부와 특전사 군승, 군종특별교구 등과 협의해 지난 6일부터

군포교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앞으로 일취사에는 첫째 주 일요일에는 국제선센터가, 2주차에는 한마음선원이, 3·4주차에는 포교사가 전담해 법회를 지원하게 된다.

 국제선센터 총무국장 탄국스님은 “군법당 포교지원사업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서남권포교거점도량으로서 한국불교의 미래인 군포교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자비나눔이고 종단의 일원으로서 당연지사”라며 “향후 지속적인 법회 지원을 통해 포교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주 1공수여단 일취사 신도회장은 “일취사를 지원해 줘 감사하다”면서 “군장병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제선센터는 오는 16일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마다 남부교도소를 찾아 정기법회를 지원한다. 국제선센터는 매월 한차례 남부교도소를 찾아 수용자 250여 명이 참여하는 법회를 주관하고 대중공양을 내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태풍 하이옌 피해복구 업무를 수행중인 필리핀 아라우부대를 격려 방문했다.

군종교구장 아라우부대 격려 방문

태풍피해 복구현장 찾아
 아름다운 동행' 지원'
 초등학교 완공식도 참석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이 필리핀 레이테주(州)에서 태풍 하이옌 피해 복구 임무를 수행 중인 아라우부대(한국군 합동지원단)를 방문, 군장병을 격려했다. 군종교구장 정우스님과 육군제2작전사령부

남장 김강영 박사, 국방부 근무지원단 경계 감의중 박사 등은 지난 7일 필리핀 아라우부대 법당을 찾아 부대안전 기원법회를 거행했다. 이로써 정우스님은 지난 2013년 12월 국제평화지원단 법당에서 열린 필리핀 파병장병 환송법회에서 인연이 되던 필리핀 현장을 방문해 법회를 봉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정우스님은 지난 8일 팔로시 바라스초등학교를 공익기부재단 이름

다운동행의 2차 지원금 2억2000만원과 군종특별교구의 3700만원을 투입해 새롭게 건립한 9곳의 초등학교 가운데 한 곳이다. 이어 타나완시 이재민촌의 재해복구지역과 무료급식, 의료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빠른 복구와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8일 저녁에는 아라우부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안전한 임무수행과 격려를 위해 부대장병 위문행사를 가졌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진관사 승려노후복지기금 보시

6년째 각종 기금 기탁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사진)이 지난 4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운동행에 승려노후복지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진관사가 전달한 기금은 아름다운운동행을 통해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전달돼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진관사는 이번 기금 전달에 앞서 지난 2009년 4월 자비나눔 기금 전달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아름다운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해왔다. 1배 100원 모금 108배 모금법회를 비



롯해 연말 저소득가정 아동을 돕는 선재의 산비 캠페인, 아이티 긴급구호, 일본 쓰나미 지진피해, 필리핀 태풍 긴급구호, 군법당 건립 기금 등 지금까지 8400만원을 아름다운운동행에 기부했다.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은 “심시일반 모든 기금이 소중한 곳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도명스님 총주 총령사	진원스님 인산 보문선원	혜주스님 여주 구곡사	석계스님 괴산 개심사	현우스님 포항 선재사	진성스님 의령 불양암
					
해진스님 부산 불정사	정일스님 울산 정성사	도륜스님 안동 서익사	도산스님 광주 대각사	원명스님 대구 관음사	원문스님 곡성 용주사

대중에게 인사드립니다



해안스님

해안 큰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지난 4월 6일 부안 내소사에서 53년 만에 재현한 생전 장례식과 은사 스님의 다례제에 참석해 주신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 주지 법만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본말사 대중과 원근을 가리지 않고 직접 동참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소납의 은사이신 해안 큰스님은 누구나 1주일만 수행 정진하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수행 정진하며 사셨던 은사 스님의 가르침이 이번 열반 40주기 추모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해안 큰스님 열반 40주기 추모 행사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동참해 주신 스님과 재가불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안 큰스님의 가르침을 조명하고, 널리 전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부처님과 은사스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여기고,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참회제자

서울 전등사 주지 동명

